

화제 여성안수 노회수의 통과

'여성 삶에 하나님 역사' 소리없는 환호

목사 73.8%, 장로 74.4% 찬성으로 가결

'여성들 앞에 있는 돌무더기를 누가 치울 것이냐'

대한예수교 장로회 1백10년 역사 속에 큰 전기가 될 '여성안수 통과'가 실현됐다. 지난 9일은 여성들 앞에 놓여 있던 커다란 돌무더기가 거두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다.

3월 7일부터 시작, 5월 9일 서울강동노회를 마지막으로 총 51개 노회의 투표결과를 목사 73.8%, 장로 74.4% 찬성. '장자교단'으로 불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기독교 역사는 양성역사를 되찾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됐다.

이 소식을 접한 김옥인(여전도회 전국연합회) 회장은 "여성안수 역사는 1932년 경안노회에서 여장로 선거와 여

자 기도권에 대한 논의가 거론된 이래 60년 동안 24번이나 총회에서 거론되었고, 15번에 걸쳐 투표를 했다"면서 "하나의 안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거론한 것은 세계교회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"라며 그

다리며 울부짖던 여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"고 전하고 "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60년 동안 선배여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1백만 회원들의 '공동기도'를 들어주셨다"며 기뻐했다.

그러나 여성신도들은 지나

한 관습을 깰 수 있도록 여성목회자들이 교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"이라는 조심스런 지적도 덧붙였다.

한편 현재 대기중인 예비 여성장로와 목사는 최소 70명에서 최대 1백명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이들 예비 여성장로와 목사는 내년 봄 노회 이전에 있을 시험을 거쳐 지역교회의 청빙이 있을 경우 이르면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.

여교역자협회, 장로회 신학대 여동문회 등 그간 여성안수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단체에서는 여성목회자들의

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(손정미 기자)

70~1백여명 대기, 이르면 96년 가을부터 목회활동 가능할 듯

간의 안타까움을 전했다.

김회장은 또 "지난해 79회 교단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안이 많은 총대들의 지지로 가결된 순간은 61년 동안 기

친 환영이 교계의 눈총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 탓인지 기쁨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교계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.

유경재(안동교회) 목사도 "교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다행"이라면서 "그간 예상측의 여성안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세계교회와의 유대와 회의, 협력관계에서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몇몇하게 나설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"고 전했다. 유 목사는 또 "여목회자들이 더욱 분발해 교회의 발전에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"고 말하고 "그러나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신도들이 여성장로나 목사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있어 긍정적이지 못



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한 여성 목회자.



'여성안수 통과'를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전도회 임원.